

「現存」보다 강한 「不在」*

- 松本清張의 「어느 『고쿠라 일기』 전」을 중심으로 -

박성희**
seongheeo21@h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관계 욕구 : 차별과 조롱을 넘어 |
| 2. 선행연구 | 5. 성장 욕구 : 유일한 구원 |
| 3. 존재 욕구 : 탁하고 어두웠던 반생 | 6. 맺으며 : 「現存」보다 강한 「不在」 |

主題語: 마쓰모토 세이초(Seichō Matsumoto), 「어느 『고쿠라 일기』 전」(“The Legend of the Kokura-Diary”), 『반생의 기록』(“The Record of Half a Lifetime”), 존재 욕구(Existence Needs), 관계 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 욕구(Growth Needs)

1. 들어가며

「어느 『고쿠라 일기』 전」(「或る『小倉日記』伝」)은 1952년 잡지 『미타분가쿠(三田文學)』 9월 호에 발표되었고 1952년 하반기 제28회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하였다. 모리 오가이(森鷗外) 연구가로서 뇌성마비 장애인인 실존인물 다노우에 고사쿠(田上耕作¹⁾)의 일생을 그린 소설이다.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이하 清張²⁾)가 『週刊朝日』의 현상모집 「백만 인의 소설」에 「사이고사츠(西郷札)」를 투고한 것은 1950년, 만 40세 때의 일이다. 3등 입선으로 「週刊朝日別冊」(1951년 3월)에 게재된 동 작품은, 제 25회 나오키상 후보가 되지만 그것으로 작가 생활이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7511)

**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 1) (1900~1945) 小倉의 시인, 향토 역사가. 1924년 문예지 「郷人形」 발간. 1938년 「森鷗外居住趾」 표목을 독자의 힘으로 세우는 등, 지역연구와 森鷗外연구로 알려졌다. 「어느 『고쿠라 일기』 전」 주인공 모델로 알려져 있다. (『松本清張展』松本清張記念事業実行委員会、2010、p.52)
- 2) (1909~1992) 小倉市(現・北九州市小倉北区)태생. 인쇄공 등 각종 직업을 전전하여 아사히 신문 서부 본사(朝日新聞西部本社)에 입사. 41세에 현상 소설에 응모, 입선한 「사이고사츠(『西郷札』)」가 나오키상 후보가 되어, 1953년 「어느 『고쿠라 일기』 전」(或る『小倉日記』伝)으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 1958년의 『점과 선(点と線)』은 추리소설계에 「사회파」의 신풍을 낳는다. 생애를 통해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그 창작 범위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방면에 이른다.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 해에는 가야하라 고이치(荳原宏一)가 의뢰한 「운송업소(くるま宿)」(「富士」12월)와 후쿠오카현(福岡県) 경찰 직장 잡지인 「曉鏡」(10월)에 기고한 「아지랑이(陽炎)」가 있다. 그러나 중앙문단과의 연고가 생긴 것은 역시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가야하라와 함께 「사이고사츠」에 주목한 기기 다카다로(木々高太郎)가 게재하도록 도와준 「어느 『고쿠라 일기』전」으로 1953년 1월, 淸張는 제 28회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다. 재능은 있지만 현실 여건에 떠밀려 고단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 「고사쿠(耕作)」의 비극적인 죽음을 그려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장애를 가진 젊은이가 현실과 싸워나가며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일상을 통해 작가 淸張는 삶의 진실에 목말라하는 인간의 본성을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자 매슬로(Abraham H. Maslow)는 인간은 욕구의 동물이며 한 욕구가 만족되면 다른 욕구들이 그 욕구를 대신하는 끊임없는 동기화 상태 속에 놓이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만족의 상태에 이르는 어렵다³⁾고 가정하였다. 이를 수정하여 알더퍼(C. Alderfer)는 인간은 저차원의 욕구가 충족되면 고차원의 욕구를 갈망하게 되며 그 과정을 욕구좌절, 욕구강도, 욕구만족으로 설명⁴⁾한다. 이와 같은 욕구에 부응하듯 왕성한 집필활동이 시작되지만, 아사히 신문 광고부와와의 겸업을 계속해야했고, 전업 작가가 된 것은 1956년 6월, 만 46세 때의 일이다. 淸張에게 있어 어둠은 가난, 차별, 장애인, 저학력, 식민지, 약자, 조선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향유해야 할 청춘의 「부재」⁵⁾로 인한 결핍의 경험은 작가 淸張를 잉태시킨 양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淸張 문학 전반의 기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 본 고에서는 문학작품이 그 사회의 거울이라는 반영이론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프랑스 철학자 보날드(Louis de Bonald)는 「만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문학작품이든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⁶⁾고 했다. 작가는 기술함으로써 현실을 문학으로 바꿀 수 있으며 또한 그 문학을 바로 현실자체라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한다. 호가트(Richard Hoggart)는 「만약 충분한 문학적 증거가 없다면 어떤 사회를 연구하려는 학생이 그 사회를 온전히 깊이 있게

3)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Maslow 1908~1970)가 1943년 주창한 이론. 욕구 계층 이론(need hierarchy theory)은 개인이 지닌 욕구와 동기 부여에 관한 이론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이다.(에이브러햄 매슬로 저·오혜경 역(2009)『동기와 성격』21세기북스, pp.81-101 참조)

4) 김범국 김희철(1998)『조직행위론』제주대출판부, p.124 참조

5) 본 고에서의 부재(不在)는 단순히 「있지 아니함」의 의미이다. 이에 반하여 현존(現存)은 「지금 있는」의 의미로, 철학적으로 모든 대상이나 사물, 과정 따위가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대상은 인간에 의해 사유되고 표상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외부에서 의식과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른다.(『한국어대사전』(200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참조)

6) 엘렌 스윈지우드 저·정혜선 역(1984)『문학의 사회학』한길사, p.12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문학은 그것이 잉태된 사회에 대한 모든 인간현상을 특수한 예술적 장치에 의해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행위라면, 사회는 그러한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제공해주면서 동시에 그 문학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포용하게 되는 대단히 넓은 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는 장애인 고사쿠의 자아실현으로의 욕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리적 물리적 단계인 존재욕구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욕구와 창조적인 한 개인으로의 내적성숙을 지향하는 성장욕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고사쿠의 육체적 불구와 경제적 결핍과 사회관계의 단절에 의한 좌절감과, 淸張의 「나에게 즐거운 청춘이 있을 턱이 없었다. 고독하고 어두운 반생이었다」는 자전적 고백은 청춘의 부재로 천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청춘의 부재로 출발한 淸張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松本淸張의 경우 淸張문학관 건립을 기점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특히 『松本淸張研究』를 통해 다양한 방면의 테마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과 관련된 연구는 南富鎭의 연구⁸⁾가 있다.

한편 작가 초기 1953년 淸張는 「어느 『고쿠라 일기』전」으로 芥川賞을 수상하는데, 심사위원이었던 사카구치 안고의 평은 淸張 문학 활동 전반을 예견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어느 『고쿠라 일기』전」은 문장이 매우 노련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조용하다. 일견 단조로운 것 같지만 조형력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표현을 내포한 문장력이다. 물론 「고쿠라 일기」의 영향으로 이처럼 조용하고 감상적이겠지만, 이 문장은 실은 살인범도 추적할 수 있는 자유로운 힘이 있고, 그럴 때는 또 다르게 분위기를 전환하면서도 역시나 숙련된 문체로 완성도 높은 마무리가 가능한 작가라고 생각했다.⁹⁾

7) 앨런 스윈지우드 저·정혜선 역(1984)『문학의 사회학』한길사, p.11

8) 「松本淸張文學の葉脈」『松本淸張研究』17호, 남부진/정혜영「松本淸張の朝鮮と韓國における受容」『松本淸張研究』12호, 「松本衛生兵の朝鮮體驗」『松本淸張研究』5호, 「松本淸張と丸山眞男の朝鮮」『松本淸張研究』14호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9) 文芸春秋編(2003)『松本淸張の世界』文春文庫, p.158

위 내용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실제로 4년 뒤 추리소설 작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작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대중 소설 작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문단에서 비난 받기도 했다.¹⁰⁾

清張에게 이 같은 낭만적인 추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미국모락단이라는 존재에 대한 맹신이다. 즉 그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타당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일본의 검은 안개에 대한 의견이 먼저 있고 그것에 기초하여 사실을 조합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清張의 추리소설과 실화물은 반드시 자본주의가 지닌 어두운 면을 그려낼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소설가라는 특권적 지위로 진실의 가능성을 적발해 낼 뿐이다. 무책임하게 적발된 ‘진상’은 清張 자신의 감정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피해망상 환자가 만들어내는 허상과 닮아 있다.¹¹⁾

위의 내용은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지적이다. 또한 제 28회 芥川龍之介賞 심사위원들은 松本清張의 수상작 「어느 『고쿠라 일기』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¹²⁾

니와 후미오(丹羽文雄)는, 「어느 『고쿠라 일기』전」은 문장도 확실하고, 이 사람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中略) 언뜻 이노우에 야스시(井上靖)군과 닮은 듯하나, 이미 실력을 쌓은 사람이라 생각된다¹³⁾고 보고 있다.

다키이 고사쿠(瀧井孝作)는 「松本清張씨의 「어느 『고쿠라 일기』전」은 맑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풍경처럼, 형용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문장에 감동 받았다. …… 내친 김에 『三田文学』작년 3월호에 실린 「記憶」이라는 작품도 읽었는데, 이 사람은 탐구 추구라는 하나의 소설방법을 몸에 익힌 듯 했다」¹⁴⁾고 밝히고 있다.

사토 하루오(佐藤春夫)는 「특이한 취재를 훌륭한 짜임새로 차분하게 처리해 안정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도 좋다. 중요한 점 외는 생략하는 약필이 아니라 바르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방법이 고미 야스스케(五味康祐)의 『기절(喪神)』보다도 이해하긴 좋지만, 묘사 방식이 아닌 서술 속에서 정경이 훌륭한 이 작품의 진가를 아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 상당히 잘 알고 있군! 하는 기분이 들었다」¹⁵⁾고 평하고 있다.

10) 平林たい子, 김동리 역석기(1962.8) 「정담 한일문학을 말한다」 『사상계』, p.245

11) 大岡昇平(1996) 「常識的文学論」 『大岡昇平全集15』 筑摩書房, p.160

12) 文藝春秋 編(2003) 『松本清張の世界』 文春文庫, pp.148-158

13) 「或る『小倉日記』伝」は、文章もしっかりしていてこの人はもう出来上っている。……ちょっと井上靖君に似た実力をたくわえている人だと思った。

14) 松本{清張氏の「或る『小倉日記』伝」は、青空に雪の降るけしき、形容しがたいような、美しい文章に感心しました。……ついでに「三田文学」の昨年の三月号の『記憶』というのも読み、この人は、探求追求というような一つの小説の方法を身につけているようだと分かりました。

15) 特異な取材をあざやかな組み立て方でじっくりと処理して落ち着いたソツのない文章もよい。省筆

한편 한국에서의 淸張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임화」와 「한국전쟁」에 관한 淸張의 글에 대해 이어령이 언급한 것이 있다.¹⁶⁾ 국내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조영일의 한국문단과의 비교 비평¹⁷⁾, 「松本淸張에 관한 考察」¹⁸⁾, 「松本淸張의 「어느『小倉日記』伝」에 관한 考察:事實에서 虚構로의 재구성을 중심으로」¹⁹⁾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우수하고 거듭되는 연구가 돋보이지만, 아직은 연구 분야도 한정되어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

3. 존재 욕구 : 탁하고 어두웠던 반생

먼저 고사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리적 물리적 욕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존재욕구는 공급이 한정된 물질에 대한 열망으로 구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는 물리적 생존과 관련이 깊은 것들로서 배고픔, 갈증, 안식처 등과 같은 생리적·물질적 욕망으로서 기본적으로 음식, 의복, 주거 등이 포함되며 이 요인들을 획득할 수 있게 업무나 조직을 통해 제공되는 수단들, 즉 보수, 부가 급부, 안전한 작업 조건, 직업의 안정성 등이 이 욕구와 관련된다.²⁰⁾ 이 범주는 매슬로가 제시한 생리적 욕구와 물리적 측면의 안전 욕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사쿠의 마음이 동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였다. 어릴 적 전편²¹⁾의 방울 소리에 대한 추억이 뜻밖에 오가이의 글로 되살아난 이래 고사쿠는 오가이의 글을 읽으며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제 「고쿠라 일기」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직 보지도 못한 일기에

でなく正筆だけにこの方が「喪神」よりも判りはいいだろうが、描写式ではなくこの叙述の間に情景のあざやかなこの作の真価を知ること少しは手間がとれるものがある。……こ奴なかなか心得ているわいという感じがした。

- 16) 이어령(2007)『바람이 불어오는 곳』문학사상, p.395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추리소설이 일본 독서계를 석권하고 있다 이 붐을 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마쓰모토 세이초란 작가다. 소설이라기보다는 공장상품 같은 마쓰모토 회사 제품의 그 소설을 보면 그 플롯이 기계의 틀처럼 공식화되어 있다.……마쓰모토가 프랑스나 독일에서 태어났더라면 인기 작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신세를 지고 있을 것이다.

- 17) 조영일(2009)「문학의 기적」『마쓰모토세이초 걸작단편컬렉션 하』북스피어, pp.437-502

- 18) 이자인(2003)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자인(2003)『일본학논집』Vol.17, pp.24-38

- 20) 에이브러햄 H.머슬로우 저, 이혜성 역(1981)『존재의 심리학』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25

- 21) 「전편(傳便)이라고 하면 외지인들은 모를 것이다. 이것은 도쿄에 수입되기 전에 고쿠라에 수입되어 있던 두 가지 서양 풍습 가운데 하나다. 우선 그 중의 하나가 전편이다.(三, p.29)」우편물 등을 당일 직접 전달해주는 사람.

자기와 똑같은 피가 흐르는 듯한 그리움 비슷한 감정마저 느꼈다.

말 그대로 두 발로 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오가이의 고쿠라 생활을 기록하여 사라진 일기를 대신해 보자는 착상을 고사쿠는 어떻게 얻었던 것일까? 당시는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의 민속학이 일반에 유행하기 시작할 때였다.²²⁾

고사쿠는 1909년에 구마모토(熊本)에서 태어나 5세 때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고쿠라(小倉)로 이사한다. 신경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고사쿠는 뛰어난 머리를 가졌으나 언어와 신체의 장애로 다른 사람들의 냉대를 받는다. 아버지는 고사쿠의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고사쿠가 10살 때 병사한다. 보기 드문 미인인 어머니는 재혼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아들을 생각하여 모두 거절한다. 고사쿠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의사이면서 고쿠라 지방의 문화후원자인 시라가와(白川慶一郎)의 일을 돕게 된다.

그러던 중에 다노우에는 당시 분실한 모리 오가이의 「고쿠라 일기」를 대신하여 모리의 고쿠라 생활을 기록하는 일에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모리의 행적을 더듬는다. 어머니도 처음으로 희망에 불타는 아들을 보고 그의 일이 성공하도록 적극 돕는다. 그러나 모자의 노력은 아무 보람도 없이 세상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고사쿠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2개월 후에 모리 오가이 자필의 「고쿠라 일기」가 발견된다.

「사이고사츠」가 활자화 된 1951년부터 전업 작가가 된 1956년까지의 6년간이 우선 清張문학에 있어서 初期에 해당된다. 초기의 특색은 清張가 남긴 「약 980편의 작품」과 「편저를 포함한 약 750권의 저서」를 배경으로 할 때, 현저히 드러나는 3개의 경향을 지적 할 수 있다. 『중학코스』(1954년 4월~1955년 3월)에 연재된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을 제외하곤, 첫째 단편이 중심인 점, 둘째 역사소설의 비율이 높은 점, 그리고 소설의 범위가 清張의 생활권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는 점²³⁾ 등을 들 수 있겠다.

「어느 『고쿠라 일기』전」은 소위 심경소설 역사소설 모델소설 전기소설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다. 이러한 해석들 속에서 이 세 가지 경향은 별개로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다. 40대도 중반이 되어 직업작가로 전환하기 위한 방책과 고심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단편이 중심이 된 것은 신진작가로 당연한 생존방편이기도 하고, 많은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초기 경향이기도 하다.

22) 松本清張(平成14)『或る「小倉日記」伝 傑作短篇集(一)』新潮文庫, p.35(이하 텍스트 인용은 章과 페이지만 표시함. 五, p.35)

23) 松本常彦(2013)「松本清張の初期小説と自傳的要素」『松本清張研究』第14号、北九州松本清張記念館, p.76

고등 소학교 졸업인 학력으로 아사히신문 큐슈지점 광고부에 근무하던 淸張는 처와 3남1녀로 아이가 늘어나고 양친까지 부양하고 있었다. 문학이나 고고학 등을 애호했다고 하더라도 창작력이라 부를만한 축적은 쌓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淸張가 작가로 전환하는 데는 상품으로서의 소설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적어도 가공하거나 재창조할 만한 소재라도 제공해줄 수 있는 모델소설이나 역사소설의 형태는 아마 필연적으로 요청되었을 것이다. 이런 소재에 관해서는²⁴⁾ 이미 연구된 것이 있다.

「어느 『고쿠라 일기』 전」과 「국화베개」로, 실제 이들을 역사소설로 보는 동시대 평도 있다. 이들도 가공하여 쓸 만한 소재가 있었던 점에서 본다면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소설로도 전기소설로도 모델소설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고쿠라 일기』 전」에서 중요한 점은 모델소설·전기소설·역사소설에서 소재를 얻었다는 사실은 아닐 것이다. 淸張는 당시 유행하는²⁵⁾ 대부분의 역사소설을 그대로 역사소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는 그 인간성을 그리는 것이 거꾸로 역사추구가 된다고 말 할 수 있는 경우만이 정말 역사소설이라고 생각한다. 검호소설이라든가 유랑소설 등은 단지 당시의 시대를 빌려온 것으로, 역사적인 의의도 뭐도 없는 것들은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²⁶⁾고 밝히고 있다.

이것을 읽으면 나는 일찍이 군대에 차출되어 전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을 때의 일을 떠올린다. 여기에는 무사의 출진이라는 화려함은 조금도 없다. 당시 제도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을 그리는 것은, 현대의 조직 안에서 숨 쉬는 인간을 그리는 일인 것이다.²⁷⁾

「현대의 조직 안에서 숨 쉬는 인간」은 주로 급사, 인쇄공, 신문사광고부, 군인의 모습으로 현대의 조직 안에서 숨쉬어 왔던 자신을 표상하는 것이리라. 이러한 자전적 요소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인간」 그리기를 반복하여 언급한 淸張에게, 「인간」 자체를 이해하고 내면의 욕구를 응시하기 위한 토양이 되었을 것이다.

초기소설의 무대가 淸張의 생활권과 겹친다는 것도 역사소설에 있어 「인간」의 리얼리티라고 하는 문제하고 같은 근본에서부터 파생하고 있다. 「어느 『고쿠라 일기』 전」도 「국화베개」도 그의 고향인 고쿠라의 이야기이다. 작가 이전의 淸張가 실지로 다닌 지명을 『반생의 기록』에서 찾아보면 본인과 양친, 조부모까지 포함시키면 일본 전역과 조선에까지 범위가 미친다.

24) 森本穰(平成20)『松本淸張 歴史小説のたのしみ』洋々社、p.54

25) 田宮虎彦(昭和28)『歴史小説について』和光社、p.87

26) 「歴史文學をめぐって」(昭和32.1)『日本歴史』、p.68

27) 松本淸張(昭和32.2)「歴史小説のこと」『中央公論』、p.106

이들을 배경으로 한 것은 초기소설 대부분에 해당한다. 구와바라 다케오(桑原武夫)는 清張와 양친의 반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생, 병원잡역부, 투기꾼, 노천상인 등, 소위 하급 직업을 전전한 아버지와 원래 방직공장 여공 이었고 문맹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생긴 清張가, 모든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아사히신문 서부 본사의 광고부원이 되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겨우 다다른 경위는 『반생의 기록』에 활자화되어 있다.²⁸⁾

清張의 인생 전반은 회상적 자서전인 『반생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자서전 비슷한 것」이라는 본인의 주석이 달린 것으로 가끔씩 연호가 어긋난 적도 있지만, 인간 清張가 어떻게 작가 清張로 탄생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력의 차별을 극복하고 가난을 견뎌내는 생활인 清張의 모습이 곳곳에 드러난다.

만일 내게 형제가 있었다면, 나는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집이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 「자서전 비슷한 것」은 더 재미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년 시절엔 부모의 맹목적 사랑 때문에, 16세부터는 가정을 부양하느라, 30세부터는 자식과 양친을 돌보느라 운신의 폭이 좁았다. 나에게 즐거운 청춘이 있을 틈이 없었다. 고독하고 어두운 반생이었다.²⁹⁾

清張에게 청춘의 부재는 현존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가난으로 인한 청춘의 부재상황이 清張에게 정체성을 모색할 계기로 기능했을 것이다. 清張는 연애, 여행, 진학 등과 더불어 본인의 선택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작가」라는 존재를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장하지만, 생활고에 따른 책임감과 존재욕구가 오히려 작가 세계 안으로 편입시킨 동력이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자신에 관한 것」 그것 자체가 표현의 방향이고 표현의 지향성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지만, 「자신에 관한 것」을 작품 속에 녹여내어도 그것이 그대로 작품의 목적에 중첩하는 예나 작품의 중심적 메시지가 되는 예는 없다. 기본적으로는 초기소설에 있어 역사나 무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얼리티에의 지향이 그 뒷받침을 해서 자전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어느 『고쿠라 일기』전」은 인생을 중층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정황을 세밀하게 묘사한 명료

28) 桑原武夫(昭和47)「解説」『松本清張全集35』文藝春秋、p.308

29) 松本清張(平成14)『半生の記』新潮文庫、p.18

한 문제와 치밀한 구성으로 시대를 그려낸다. 차별을 극복하고 가난을 견뎌내는 생활인의 모습이 어둡고 무겁게 그려졌다.

4. 관계 욕구 : 차별과 조롱을 넘어

고사쿠의 관계 욕구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만족될 수 있는 대인적 욕구이며, 생각과 감정을 타인과 상호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된다. 즉, 인간은 타인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욕구로는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 등이며, 특히 의미 있는 타인 즉, 부모, 상사, 동료, 형제 등과의 관계가 이 욕구의 핵심을 이룬다. 이 욕구범주는 매슬로의 안전 욕구, 귀속 및 애정 욕구, 일부 존경 욕구와 유사하다.

신경계통 문제로 원다리를 절고, 언제나 입을 반쯤 벌린 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고사쿠라는 청년에게 소설가 모리 오가이는 이를 수 없는 꿈이자 동경의 대상이다. 어느 날 모리 오가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쿠라에서 한철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고사쿠는 고쿠라에서 모리 오가이의 행적을 조사해보기로 결심한다. 모리 오가이가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으며, 어디를 찾았고,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사하는 이 변변찮은 과정에 고사쿠는 조롱받기 일쑤인 자신의 존재를 투영시킨다. 그가 왜 태어났으며,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것이다. 병든 몸에 하필 명석한 두뇌가 더해져 일상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조롱을 견뎌내지 못하던 고사쿠에게 모리 오가이의 행적을 조사하고 그곳에 머물며 썼을 법한 일기를 작성해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자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고사쿠는 K에게 편지를 써서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런 조사 작업이 가치 있는 일인지 어떤지 선생이 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정말로 그의 본심이었다. 혼자 생각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자기가 뭔가 턱없이 헛된 일에 매달리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종종 엄습했다. 누구든 권위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것 같았다. 의미 없는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K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바로 그 점을 확인받기 위해서였다.(七. p.43)

이 연구는 고사쿠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다. 장애인 자식을 둔 어머니 후지의 지극정성이 이 조사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으로 그려진다. 淸張는 고사쿠를 왜 장애인으로 그렸을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존인물이 장애인인 점은 밝혀둔다. 여기에 더하여 고사쿠가

장애라는 사실은 갈수록 기우는 가세 속에서 생계유지의 고통으로 인한 육체적인 궁핍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정신적으로도 고갈 상태에 이르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그것도 인지능력이 좋은 경우 본인의 현실에 대한 좌절감은 더욱 배가되었을 것이다.

“그런 걸 조사해서 어따 쓰시게?”

하고 옆에 있는 후지에게 툭 내뱉듯이 말할 뿐이었다.

그런 걸 조사해서 어따 쓰시게? 그가 툭 내뱉은 이 말이 고사쿠의 마음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혔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작업에 의미가 있을까? 괜한 일에 나 혼자 오기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자 문득 자기노력이 전혀 쓸데없이 보이고 갑자기 떠밀려 난 기분이 들었다. K의 편지마저 걸치레 인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희망은 갑자기 사라지고 새까만 절망이 엄습해 왔다. 이런 절망감은 이후엔 종종 불쑥불쑥 일어나 그는 머리카락을 쥐어뜯 으며 괴로워했다.(七. p.42)

오가이의 자취를 조사하던 중에 만난 기방 주인은 고사쿠에게 그런 걸 조사해서 어디다 쓰겠느냐고 나무란다. 기방 주인의 말처럼 이런 작업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고사쿠를 절망에 빠뜨리곤 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고사쿠에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쓸데없는 작업 외엔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쿠라에서 오가이의 발자취를 조사하는 것은 고사쿠에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소중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놓치고 싶지가 않았다. 고사쿠에겐 타인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이 「이것이 내 평생의 업적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경험이 너무나 절실했던 것이다. 이는 곧 清張가 자기 자신에게 바라는 삶이기도 했을 것이다.

고사쿠가 느꼈을 절망감, 「그런 일을 조사해서 뭐합니까?」라는 질문은 사실은 清張가 무수히 부딪쳤던 질문이었을 것이다. 『반생의 기록』에서도 당시 인쇄소 직원의 세계나 신문사 등 업계의 모습이나 그 속의 학력차별의 모습을 극명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나는, 군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인간지옥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이 들었다.³⁰⁾

정읍에서 주둔하던 시절 清張가 저녁 무렵 조선인 마을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면서 자신의

30) 前掲書、p.81

고향을 생각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 淸張는 분명 일본군의 일원으로 조선에 주둔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자유롭게 홀로지내는 경험을 한다. 식민지라고 해도 이국인 조선의 풍경은 淸張에게는 신선하고 자유로운 풍경으로 비춰진다. 오히려 淸張는 식민지 조선과 그들의 삶이, 직장에서 차별받는 본인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듯 비춰진다. 이러한 자각은 과거 직장에서의 절망적 한계와 달리 군 생활에서의 기묘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군인 생활은 나로선 생각지 못한 것을 발견시켰다. 「여기에 오면, 사회적인 지위도, 빈부도, 연령의 차이도 완전히 소멸된다. 모두가 같은 레벨이다.」라는 말처럼, 군대에서의 신분의 평등이 기묘하게도 나에게 사는 보람을 갖게 했다. 아사히신문사에서 아무리 있어도, 그 차별적인 대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략) 아사히신문사에서는 절대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쨌든 개별의 능력이 성적이 되는 것이다. 내가 군인 생활에 기묘한 신선함을 느낀 것은, 직장에는 없는 「인간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³¹⁾

군대생활을 통해서 실감한 것 중 하나는 「평등함」이라고 淸張는 말한다. 빈부나 나이 차, 사회적 지위가 없는 생활에서 「직장에는 없는 『인간 존재』를 발견했다, 「신병 시절의 평등이 내게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 주었다」³²⁾고 밝힌다. 학력과 신분 차별의 굴레에서 신음했던 淸張가 군대라는 곳에서 기묘한 해방감을 느낀다.

어느 날 찾을 것이 있어 백과사전을 뒤적이고 있는데 「사이고사츠」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자니 한 가지 공상이 떠올랐다. (중략) 생활의 괴로움에서 도피하고자 공상을 소설로 써 보기로 했다. 마감까지 스무날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淸張에게 소설을 쓰는 동안에는 괴로운 현실도 빗겨가 주는 듯 했다. 상금을 생활비에 보태기위해서라는 건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물리적 트릭을 심리적인 작업으로 고칠 것, 특이한 환경이 아니라 일상에서 설정을 찾을 것,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 것, 누구나 경험할 만하거나 어디서나 일어날 것 같은 서스펜스를 추구할 것, 나는 환상이 아닌 리얼리즘 안에서 미스터리를 쓰고 싶다.³³⁾

31) 前掲書、p.82

32) 上掲書、p.113

33) 福岡隆(1968)『人間 松本淸張』大光社、p.125

이와 같은 집필의도를 지니고 清張는 웅크리고 살아야 했던 전반생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데뷔 초부터 일 년에 이삼십 편의 작품을 발표하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드러냈다. 전성기 때 清張의 집필량은 한 달에 사백 자 원고지 1200매에 도달했다고 한다. 고사쿠가 끝없이 의문을 품었던, 본인의 작업이 과연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한 질문의 출발은 清張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인다.

5. 성장 욕구 : 유일한 구원

고사쿠의 성장 욕구는 창조적 개인으로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내적 욕구이다. 이 욕구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개인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속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욕구를 말한다. 따라서 성장 욕구의 충족은 개인적 능력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작품이 『三田文学』에 게재된 경위는, 저자의 처녀작인 「사이고사츠(西郷札)」가 나오키 상(直木賞) 후보작이 된 것을 알고, 저자가 게재지를 3명의 작가에게 보내게 된다. 그 중 한명이 『三田文学』의 편집자이자 작가이며 대뇌 생리학자인 기기 다카다로(木々高太郎)였는데, 그는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칭찬한다. 그리고 「발표지가 없으면 소생이 지인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은지…」라며 권했던 것이 연결되어 원고를 잡지사에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三田文学』에 게재되어 아쿠다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한 원고는, 현재 『松本清張全集』을 필두로 각 서적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는 엄밀하게는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원고를 잡지사에 일단 보낸 후에 改稿를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져서, 미리 보낸 원고가 그대로 아쿠다가와상 수상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후에 개고를 한 이유에 대해 「『三田文学』에 게재되어 있는 다른 작품들은 훨씬 완결된 문장이어서, 과연 소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배운 점도 있지만, 한방 맞은 기분이 들어, 조금이라도 낮게 고쳐보고자 한 생각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글쓰기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나는,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쓸 것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남들이 가는 길은 견고 싶지 않았다.(1963.11)」는 清張의 독특한 성장 욕구로 이어져 방대한 창작 작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왜 그러니?” 하고 묻고 귀를 가까이 대자 묘하게 분명한 발음으로 말했다.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방울?” 하고 되물자 고개를 까딱했다. 그리고 얼굴을 베개에 묻듯이 떨어뜨리더니 다시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였다. (중략)

눈발과 별이 서로 번갈아드는, 오가이가 ‘겨울 소나기’라고 말했던 그런 날이었다.(十一, p.62)

불편한 몸으로 최선을 다해 버텼던 고사쿠가 현실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 온 생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동경해마지않던 오가이의 「고쿠라 일기」와 연결된다.

(페이지 33년 1월 26일)

온종일 눈보라다. 그 모양이 북쪽 지방과 같지 않다. 바람이 먹구름 한 덩이를 밀고 오면 눈꽃이 어지러이 날리는데 오히려 하늘 한쪽 구석 창공에서는 햇별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규슈의 눈은 겨울 소나기라고나 할까.(모리 오가이 「고쿠라 일기」)(p.21)

고사쿠를 감동에 떨게 하며 잠 못 들게 했던 오가이의 「고쿠라 일기」 중 전편꾼의 방울 소리이다. 「밖에는 어느새 눈이 내린다. 이따금 발자국을 찍으며 뛰어가는 전편의 방울소리가 들린다.」 고사쿠가 오가이의 글에 친숙해진 까닭은 이런 그리운 추억이 계기였으나 오가이의 쓸쓸한 문장도 고사쿠의 고독한 마음에 잘 어울렸을 것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불구의 몸으로 맞선 고사쿠는 「희미하고 서글픈」 그 방울소리를 들으며 짧은 생을 마감한다.

1951년 2월, 도쿄에서 오가이의 「고쿠라 일기」가 발견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가이의 아들이 피난처에서 들고 돌아온 잡동사니 가득한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 일기를 발견한 것이다. 다노우에 고사쿠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은 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가 없다.(본문 11, p.63)

끝내 고사쿠의 연구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종료된다. 清張는 독자에게 고사쿠가 믿고 있는 연구에 대한 정열적인 삶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는 듯하다.

에나미(江南)는 고사쿠를 존경하고 있다. 고사쿠가 조금도 자신의 비참한 신체를 암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조용히 감동하고 있다. 하지만 에나미도 알지 못했다. 고사쿠가 자기 몸에 대해 얼마나 절망하며 변민하는지, 남들이 알 수는 없었다. 그저 변민하여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두뇌에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깃털처럼 미덥지 못한 버팀목이기는 해도 유일하다면 유일한 희망이었다. 자기가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치더라도 두고 봐라, 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었다.(四, p.31)

고사쿠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 줄곧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한탄스러워 하는 경향을 품고 있다. 그것은 두뇌에 대한 자부심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 더욱 배가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인간 본성의

비합리적 측면, 특히 激情의 구실을 중시한 F.W.니체는 권력의지에 의해 촉발된 강자의 공격 욕에 대한 약자의 걱정을 복수감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빌면, 그리스도교의 「사랑」도 사실은 증오감이나 복수감의 숨겨진 정신적 태도에 지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실천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것을 상상의 복수로 갚는 忍從과 寬容의 모럴에 지나지 않는다³⁴⁾고 봤다.

한탄과 불평조차도 삶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자극만으로도 사람들은 삶을 견딜 수 있다. 모든 불평에는 조금씩의 복수심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열등감 자체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면서 그들을 비난한다. 마치 이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범하고 있으며 용인되지 않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듯이.³⁵⁾

니체는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가 세상을 비방하는 것이나 그리스도교인이 세상을 단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똑같이 원한과 복수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M.셀러는 「복수를 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기만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심오한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의 행위가 적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³⁶⁾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도 고사쿠는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자기 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도전한다. 저주받은 육신을 넘어 유일한 구원과도 같은 두뇌를 믿고 마침내 이루어내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보인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때때로 일삼아 과장되게 바보 같은 몸짓을 했다. 그런 몸짓을 흉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자신의 진짜 몸조차 흉내 내는 것이라고 착각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자신을 위로했다. 남들이 웃어도 태연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가 먼저 웃어주고 싶을 정도였다. 제 몸뚱이를 짐짓 남들 앞에 까발리는 것 같아도 자기처럼 팔로 감싸 안 듯 퐁퐁 가리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四, p.32)

타자에 대한 무시를 넘은 고사쿠의 타자 부정은 근원적으로 강한 자기 긍정의 기반 위에서 생성되며, 그 부정은 또다시 긍정에 의해 지양된다. 이러한 긍정이 성숙된 인간의 창조이며 진정한 강자의 덕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 시간을 후회하거나 외부의 대상, 타자에

34) 임석진 외(2009)『철학사전』도서출판 중원문화, p.179

35) 니체 저, 박찬국 역(2015)『우상의 황혼』아카넷, p.135

36) 막스 셀러 저, 조정옥 역(2006)『동감의 본질과 형태들』아카넷, p.305

대한 증오와 복수욕을 품지 않고 끝을 맺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사쿠의 비참한 삶에 의미를 부여해서 성장시키려는 의도이자 淸張로선 자기애의 발로라 볼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자기를 성장시키는 욕구라고 볼 수 있겠다. 淸張는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戦後가 되어 실제로 鷗外가 쓴 『小倉日記』가 나왔습니다. (中略) 그와 같은 인간의 재능이 실물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아무런 의의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헛된 작업이라는 것을 느끼고 소설로 써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³⁷⁾

일기의 실물이 나왔다는 것은 주인공인 田上耕作, 이것은 실명이지만, 田上에게 있어서는 운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것대로 평가되었을 텐데요. 숙명적인 좌절은 마지막에 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노력한 것, 한가지의 일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다는 것, 그것이 불구자로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한 남자의 삶의 보람이었다는 것을 쓰고 싶었습니다.³⁸⁾

남이 보면 헛된 것들에 대한 잔상이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부분에서 淸張의 의도된, 「事實」과의 불일치가 드러난다. 등장인물의 이름의 차이, 죽음의 지연, 출생과 사망의 차이, 장애 상태의 차이, 가족상황의 차이, 경제상황의 차이, 학벌의 차이, 작업에 대한 보상의 차이, 심지어 「고쿠라 일기」의 발견날짜 등,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이와 관련된 결과는 선행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작업은 작가의 창작의도와 연결되어 의미를 배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위한 강화나 생략의 장치. 차별과 격차 인간의 좌절감의 강화를 드러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억압받아왔던 생활인의 경험에서 얻은, 리얼리티를 배가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다.

6. 맺으며 : 「現存」보다 강한 「不在」

「어느 『고쿠라 일기』전」은 福岡県 小倉市에 살았던 松本淸張가 고향을 무대로 한 작품이다. 오가이가 군의로서 고쿠라에 부임했던 3년간을 기록한 「고쿠라 일기」의 행방을 찾는 일에 전념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그려낸 단편소설이다. 그때까지 朝日新聞 서부분사에 근무하면서

37) 田村 栄(1993)『松本淸張の世界 -その人生と文学-』光和堂, p.40, 재인용

38) 大塚美保(1995.2.)「或る『小倉日記』伝-「事物」出現をめぐる-」『解釈と鑑賞』60卷 2号, p.60, 재인용

집필활동을 하고 있던 清張가 상경해서 소설가로서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이다. 清張의 문학 활동은 「어느 『고쿠라 일기』전」으로 시작해서 『양상·모리 오가이(兩像・森鷗外)』로 끝맺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오가이의 현존과 그의 부재와도 관련이 깊다.

松本清張 작품에 일관된 것은 清張 스스로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헛된 것」에 대한 시선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등바등 붙잡으려 애쓰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러나 그 헛된 것을 향한 각자의 열정을 누가 비웃을 수 있는가? 清張의 작업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39)

清張의 삶은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과의 싸움이였다. 문단과 학계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그때만 해도 싸구려 장르로 일컬어지던 추리소설을 쓰는데다가 늦은 나이인 마흔한 살이 되어서야 데뷔작을 내놓은 清張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清張은 인생을 바쳐 모두가 늦었다고 포기하라는 시점에 전력으로 자신을 발굴하고 등장시킨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清張는 재능이나 건강, 신분이나 학력 등에 가치를 두는 세속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좀처럼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씁쓸한 현실을 그렸는지도 모른다.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 맺기를 원했고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고사쿠를 필두로 하는 불우한 재능인들에게 죽음 이외의 구원을 가져다줄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清張는 이후의 작품에서도 변함없이 거의 부정에 가깝게 응답하여 독자에게 냉정한 현실을 직면케 한다.

이상에서 장애인 고사쿠의 자아실현으로의 욕구과정을 清張의 집필배경과 중첩하여 살펴 보았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리적 물리적 단계인 존재욕구는 탁하고 어두웠던 반생으로부터 변화의 물꼬를 틔웠다. 또한 불구라는 사회적 차별과 조롱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했던 관계욕구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가치실현의 작은 몸짓이었다. 그리고 창조적인 한 개인으로의 내적성숙을 위한 성장욕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이었음을 읽을 수 있었다.

【參考文獻】

- 松本清張(1984)『松本清張全集』文芸春秋社
 _____(平成14)『半生の記』新潮文庫
 _____(昭和47)『半生の記』新潮社

39) 森野森美、宮部みゆき(2004)『松本清張 傑作短篇コレクション』、p.501

- 権田万治(1998)『新潮日本大学アルバム49 松本清張』新潮社
 松本清張(平成14)『或る『小倉日記』伝 傑作短編集』新潮文庫
 『松本清張展』松本清張記念事業実行委員会(2010)
 大塚美保(1995)『或る『小倉日記』伝-「事物」出現めぐって-』『解釈と鑑賞』60卷 2号
 『松本清張(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新潮社(1994)
 現代作家研究会編(1993)『ビジネスマン読本 松本清張』日本能率協会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田村 栄(1993)『松本清張の世界 -その人生と文学-』光和堂
 樫原 修(1995)『『半生の記』- 清張と清張』『解釈と鑑賞』60卷 2号
 藤沢全『大衆文学—物語のアルケオロジ』『松本清張探究とロマネスクの超人』学灯社、国文学 8月号 第31卷 9号
 山崎一穎(1997)『或る『小倉日記』伝 論-事実と虚構の交叉-』『鷗外』60卷
 武田勝彦(1983)『松本清張、海外の評価』『国文学』28卷 12号
 文藝春秋 編(2003)『松本清張の世界』文春文庫
 森本穂(平成20)『松本清張 歴史小説のたのしみ』洋々社
 田宮虎彦(昭和28)『歴史小説について』和光社
 阿刀田高(2004)『小説工房12カ月』集英社
 김치수 편저(1989)『구조주의와 문학비평』기린원
 마쓰모토 세이초, 김병걸 옮김(1987)『북의 시인 임화』미래사
 막스 쉐러 저·조정옥 역(2006)『동감의 본질과 형태들』아카넷
 막스 쉐러 저·이을상 역(2009)『공감의 본질과 형식』지만지 고전선집
 박찬국(2015)『니체를 읽는다』아카넷
 에이브러햄 매슬로 저·오혜경 역(2009)『동기와 성격』21세기북스
 에이브러햄 H. 매슬로 저, 정태현·노현정 역(2004)『존재의 심리학』문예출판사
 에이브러햄 H. 매슬로 저·왕수민 역(2011)『인간 욕구를 경영하라』리더스북
 에이브러햄 H. 매슬로우 저 이혜성 역(1981)『존재의 심리학』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엘리엇트 애런슨 저, 유진·최상진 역(1991)『사회심리학』탐구당
 M. S. 프랑스 저·금교영 역(2002)『막스셸러 철학의 이해』한국학술정보(주)
 앨런 스윈지우드 저·정혜선 역(1984)『문학의 사회학』한길사
 조정옥(1999)『감정과 에로스의 철학』철학과 현실사
 루카치 저, 반성완 역(1998)『소설의 이론』심설당
 루시앙 골드만 저, 조경숙 역(1982)『소설 사회학을 위하여』청하
 피에르 지마 저, 이진우 역(1983)『문학텍스트의 사회학을 위하여』문학과지성사
 프리드리히 니체 저·김정현 역(2002)『도덕의 계보』니체 전집 14, 책세상
 프리드리히 니체 저·김미기 역(2001)『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I』니체 전집 7, 책세상
 한덕웅(1981)『조직행동의 동기이론』법문사
 『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임석진 외(2009)『철학사전』도서출판 중원문화

논문투고일 : 2017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要旨>

「現存」보다 강한 「不在」

- 松本清張의 「어느 『고쿠라 일기』 전」을 중심으로 -

박성희

『어느『고쿠라일기』전』(或る『小倉日記』伝)은 마츠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단편소설로『미타문학』(三田文学)1952년 9월호에 발표되어 다음 해 第28回 芥川賞을 수상했다.

『어느『고쿠라일기』전』은 소위 심경소설 역사소설 모델소설 전기소설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다. 이러한 해석들은 40대도 중반이 되어 직업작가로 전환하기 위한 방책과 고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단편이 중심이 된 것은 신진작가로 당연한 생존방편이기도 하고, 많은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초기 경향이기도 하다.

여러 부분에서 清張의 의도된, 「사실」과의 불일치가 드러난다. 이러한 작업은 작가의 창작의도와 연결되어 의미를 배가한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위한 강화나 생략의 장치. 차별과 격차 인간의 좌절감의 강화를 드러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억압받아왔던 생활인의 경험에서 얻은, 리얼리티를 배가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임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의 조직 안에서 숨 쉬는 인간」은 주로 급사, 인쇄공, 신문사광고부, 군인의 모습으로「현대의 조직 안에서 숨」쉬어 왔던 자신을 표상하는 것이리라. 이러한 자전적 요소는 여러가지 표현으로「인간」그리기를 반복하여 언급한 清張에게, 「인간」자체를 이해하고 내면의 욕구를 응시하기 위한 토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ence Stronger than Presence

- Focusing on “The Legend of the Kokura-Diary” by Seichō Matsumoto(松本清張) -

Park, Seong-Hee

“The Legend of the Kokura-Diary” (『或る『小倉日記』伝』) is a short story written by Seichō Matsumoto (松本清張), which was published in the September 1952 issue of Mita Bungaku (『三田文学』) and won the author the 28th Akutagawa Prize next year.

There are various ways to approach the story. “The Legend of the Kokura-Diary” can be read as a psychological story, a historical story, a model story, and a biographical story. These readings might have derived from the author’s efforts and struggle to become a full-time writer in his mid 40s. It might be natural that the short story was his main genre because as a budding writer he had to make a livelihood by writing, and it is also a tendency found among many writers in their nascent stage of career.

There are many incidents of the author’s intentional discrepancy in the story. In connection with the author’s intention, this can be a technique to reinforce the zest and significance of the story. It is a device for reinforcement or omission for the work, underscoring discrimination, gaps, and human frustration. It tells about the intention of the author to intensify or heighten the reality, which he had experienced from his life that had been suppressed for a long time.

‘The human being breathing in modern organizations’ perhaps represents the author himself, who has been ‘breathing in modern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an office boy, a printer, an employee at the newspaper advertising department, and a soldier. For Seichō who represented ‘human beings’ in diverse forms, these autobiographical elements provided the foundation to understand ‘a human being’ himself and look into his inner desires and anxieties.